

# 대행스님 부산 대법회

## 28일 사직체육관... '팔만대장경 전산화' 동참호소

21세기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부산 대법회가 28일 오후 2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봉행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불교부산방송,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법회는 문화선진국으로서의 초석이 될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전국민적 노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 대행스님은 '삶은 고(苦)가 아니다'를 주제로 대법정의 가르침을 배풀어 위기상황으로 치달고 있는 현실에 슬픔을 띄워주고, 나아가 불교도의 결집을 촉구, 대장경 전산화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한다.



○대행스님

부산지원장 해도스님은 "7백여년 전 고려대장경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 불사는 나라 안팎으로 끊이지 않는 사회혼란 극복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옛날 고려인들이 온갖 노력으로 팔만대장경을 새겨 국난을 극복했듯이 전 불교도가 앞장서 21세기 팔만대장경

## 한가위 밝힌 '자비의 보시'

### 삼광사 소년가장에 1천만원 성금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3일 법화당 4층 법회실에서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거주 무연고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1백여명이 초청된 이날 행사에서 삼광사는 각 세대당 1실만 원씩 모두 1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다과회를 베풀고 이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덕수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내가족처럼 보살피는 것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곳곳이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덕수스님과 신도회장 김찬권씨를 비롯한 삼광사 스님 및 신도들과 부산진구청 직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 불교방송 발전위한 공청회

### 진상규명·재정위구성 제안

'어떻게 방송재정을 확충할 것인가'는 주제로 10일 열린 불교방송 발전을 위한 제1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불교방송 공공화방안의 철저한 진상규명 선행, 방송재정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기영 교수와 사회로 윤정광씨 권오현 전무, 김재일 회장, 신상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공화방안의 명확한 진상규명 선행 △공공화방안 관련자 퇴진 △직무분담 방안 이사의 직무정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촉구 △이사회 개편 △경영상태 개선 △노사갈등해소 △재단사무국 해체 △재단이사회 산하 가정 '방송재정위원회' 구성 △불교방송후원회의 방송국 산하 편입 등이 논의됐다.

특히 기초발제를 맡은 윤정광씨는 월령금 23억의 전액회수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정운동추진위는 7일 육군 제2훈련소 연병장에서 장병 1만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운동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자십씨(우리는선우 이사장)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 종단소식

### 조계종

#### 금오문도회 수련법회

보은 법주사(주지 해광) 금오문도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간 설법전에서 제6차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금오대선사의 행장 및 선사상, 새 시대의 승가상, 선의 풍토와 정신 특강 등이 진행된다. 한편 법주사는 10월6일 금강계단서 추계 보살계 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 월정사 경월스님 부도제막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22일 경월스님 제2주기 추모법회 및 부도제막식을 봉행한다. 이에 앞서 월정사는 10일 지장암 비구니 감원(암자의 주지)을 역임하다 95년 열반한 해종스님 부도제막식을 봉행했다.

### 태고종

#### 용문사 운전자 무사고기원

전북 완주 용문사(주지 송오)는

### 법륜종

#### 재단이사장 정각스님 취임

종단 유지재단법인 제2대 이사장 정각스님 취임식이 10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취임식에는 1세종정 금암

### 안림

본지 20번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향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에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 법륜종

#### 원효사 대웅전 낙성식

공주 원효사(주지 일화)는 7일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1년여 공사 끝에 낙성한 대웅전은 연건평 1백30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요사채가 2층에는 대법당이 마련됐다.

### 안림

본지 20번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향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에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 불교방송 발전위한 공청회

### 진상규명·재정위구성 제안

'어떻게 방송재정을 확충할 것인가'는 주제로 10일 열린 불교방송 발전을 위한 제1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불교방송 공공화방안의 철저한 진상규명 선행, 방송재정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기영 교수와 사회로 윤정광씨 권오현 전무, 김재일 회장, 신상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공화방안의 명확한 진상규명 선행 △공공화방안 관련자 퇴진 △직무분담 방안 이사의 직무정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촉구 △이사회 개편 △경영상태 개선 △노사갈등해소 △재단사무국 해체 △재단이사회 산하 가정 '방송재정위원회' 구성 △불교방송후원회의 방송국 산하 편입 등이 논의됐다.

특히 기초발제를 맡은 윤정광씨는 월령금 23억의 전액회수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허·민공·금오스님으로 내려오는 한국선종 정통법맥을 이은 성립당 월산대중사의 영결식이 1만여 사부대중의 애도속에 불국사에서 봉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 중도사상 펴며 평생 '이렇고' 참구

"무명에 가린 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참선밖에 없다. 나의 사상은 참선 뿐이다. 이것만은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평소 이렇게 강조해온 그대로 월산스님은 평생 참선수행에 매진했다. 스님은 43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후 조계종 정화불사에 앞장섰고 총무원장, 원로회의의장 등 종단요직을 두루 맡았으며 한때 종정의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평소 조국통일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 89년 토함산 정상에 남북통일 기원 대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1백80cm가 넘는 신

### 월산스님 생애와 사상

"홀연히 본래사를 깨달으니 부처와 조사가 어디에 있느냐. 뱃속이 건곤을 간직하고 몸을 돌려 사자후를 하라. 세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쉬지 않는다(홀연본래사 불조재하쳐 토이장건곤 전신사자후 佛在何處 肚裏藏乾坤 轉身獅子吼 不立不捨不休)"라고 계승을 읊었다. 이때 금오스님은 인가하고 법주사 조실을 맡았다. 스님은 득도한 이래 만공스님에게 받은 '이렇고' 화두를 놓지 않

했다. 이런 인연으로 스님은 거처에 육조 만공 금오스님의 근영을 모셔놓고 스스로 경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양쪽을 포용하는 중도(中道)사상을 강조했다. "중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중도관은 일체 것을 초월해서 일체것을 여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단점논쟁(頓漸論爭)에서도 초연 입장을 견지했으며 "물과 마음이 하나가 될때 깨달음의 길에 도달할 수 있으며 선이란 해탈과 자제를 여는 요제"라는 법문을 내리곤

## 10여개선원 조실 '선풍진작'...통일에도 큰 관심

장에 선풍도골의 위의를 갖춘 스님이지만 은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모든 불자들을 맞이했다. 스님의 생애는 한국선불교의 양대산맥의 하나인 덕수문종의 경허만공 금오로 이어오는 법맥이 관통한다. 스님은 1968년 음력8월 은사 금오선사에게 전법을 부촉받았다. 금오스님은 일반적 법주사에 묻도 제자들을 모이게하고 오론소 바다를 보였었다. 그때 월산스님은

고 정진했다. 스님은불국토 경주 남이섬만 은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모든 불자들을 맞이했다. 스님의 생애는 한국선불교의 양대산맥의 하나인 덕수문종의 경허만공 금오로 이어오는 법맥이 관통한다. 스님은 1968년 음력8월 은사 금오선사에게 전법을 부촉받았다. 금오스님은 일반적 법주사에 묻도 제자들을 모이게하고 오론소 바다를 보였었다. 그때 월산스님은

했다. 이후 스님은 '구심점(求心點)'을 휘호해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펴기도 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건가. 인생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선은 그런것을 아는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말년에도 대중을 제접하고 "나를 찾아 참선하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중생신(中身身)과 같은것"이라며 경책했다. (위영란·이윤호 기자)

### 월하·석주스님 등 참석

○영결식에는 스님의 선풍을 가능케해준 제방의 스님들이 대거 참석. 열반 이튿날 이른 아침 분향한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통도사 방장)을 비롯해 원로회의의장 해암스님, 부의장 벽암스님(신원사조실), 철보사 조실 석주스님, 불갑사 조실 지중스님, 화계사 조실 승산스님, 해운정사 조실 진제스님 등 3천여명으로 추산. 특히 화계사 송광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 10명과, 교포3세로 월산스님과 속성이 같은

### 월산스님 애도 열기

일본 선대 불국사 주지 동화성림(東和聖林)스님이 애도에 눈길. 유훈따라 사리 수습 안해 ○○장외위원회는 스님의 사리는 문종의 가풍과 스님의 유훈에 따라 수습하지 않는다고 발표. 이에 대해 사리신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했다는 반응. ○...스님은 96년 부부터 노환을 보여 3월 폐렴으로 한차례 입원했으며 8월들어 중환을 보였다고. 특히 스님의 상좌들은 2년여 간병에 극진해 위계가 흐르지

는 요즘 승단풍토에 바람직한 '효(孝)상좌'의 모습을 보였다든 평. 정치인 다수 조문 발길 ○...영결대법석에는 서석재 정각회장·함종환의원(신한국당), 조성준·정한용의원(국민회의), 이인재 前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들도 다수 조문. ○...금오문종의 수장인 스님의 열반으로 불국사 법주사 조실 추대가 조미의 관심사로 부상. 그러나 49세가 지나야 문종논의가 있지않겠는가 하는것이 주위의 분석.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 대학: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 대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 기간: 8박 9일
- 주요연수내용: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등의 침치료, 기공등
- 연수 후: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 인원: 10명 선착순
- 출발일: 1997년 10월 21일(화)
-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화: (02)511/2026-8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옥 옥벽이 석을 10분후 석은 손의 분리파장이 활발하다. 연구 사용된 1.5V 연구사용용 3.0V로 세내진압 상승

옥벽대, 배개, 반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모든 병이 호전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황반,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립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혈당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저유 효과를 기록했다. (93.2.17 서울신문)

유산가옥이 위약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약의 추위(寒)에 적응을 하면 병을 없애고 기력이 회복됩니다.

玉山家 옥벽을 직접해서 사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명맥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원리판가)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진료: 매주 목요일, 일요일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